

산은 인간 삶과 정신의 뿌리



<14> 산속의 삶-선의 삼매경

좀 오래 전 일이다. 나하고 사진을 같이 공부하는 어떤 이가 허루는 '화두우리는 사진의 주제를 이렇게 부른다'를 갖고 왔다. 늘 주제를 잡지 못해 방황하던 그는 머뭇거리듯 내 눈치를 살피며 화두를 꺼냈다. "산을 찍으면 어떨까요?" "산? 산이 찍고 싶은가요?" 그의 심중을 떠보듯 내가 물었다. "글쎄요. 그냥 산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투가 어찌 자신이 없어 보였다. "밥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딱연히 그려선 화두가 안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도 내친김이란 듯 이번엔 좀 힘 있게 말했다. "그냥 산이 좋아요." "그래요? 밥도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듯이, 사진도 찍고 싶은 건 찍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옛날엔 산이 우리의 삶이었다. 온 나라 땅의 철학이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니까, 산과 우리네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터전일 수밖에 없었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들어 있는 곳이면 마을



◇도봉산 천축사가는 길.

동산에 해뜨고
서산에 해지듯
산과 생활은 밀착

이끼진 산속의 돌
도 닦는 보살처럼
용맹정진 선 수행

을 일구고 살았다. 아침 저녁, 하루를 산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동산에 해 뜬다.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가! 하고 했고, 저녁에 해 지는 것을 서산에 해 지었다고 했다. 산이 없으면 해도 뜨지도 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다. 산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없는 것이다. 풍수는 산과 우리네 삶이 밀착된 데서 생겨난 우리네 정신이고 정서였다. 서양에선 산의 이름을 대개 그 산을 정복하거나 처음 받았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 짓지만 우리네는 산의 생김새를 동물의 모습에 비유하여 붙이거나 우리네 정신의 바탕이 되는 상징에 따라 붙였다. 소가 누워 있는 것 같아 와우산, 용이 날아가는 것 같아 비룡산, 금강석 같은 불벽의 세계를 비유해 금강산. 이런식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산이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산을 서양식으로 생각하여 견강제조하는 기분으로 '등산'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

을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여 뽐내고 하지만, 예전의 우리네는 아예 '등산'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불경스런 말이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신령스런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으면 산으로 간다. 그것이 산 소(山所), '산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산에는 산신, 산신령이 살고 있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다. 서양은 높고 험한 산이 많은 곳이고, 인간위주의 생각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산을 정복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고, 인간의 힘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보는 쾌감을 즐겼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높고 험한 산은 악산이라고 해서 피했다. 우리네 산은 늘 따사로운 삶의 터전을 생각하고 살았다. 산에서 우리네 조상은 삶의 내면적 깊이를 찾았다. 그러므로 산속엔 무당같은 민속신앙의 꽃이 피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네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산을, 요즘 사람들은 서양식으로 산세의 우뚝스런 모습만 드러내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네 정서를 드러내는 사진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생각을 대중 정리하고, 우선 서울과 연관

이 깊은 북한산을 찍기로 했다. 첫 날 나는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 코스를 답사 겸 같이 갔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복잡한 도심의 때가 벗겨지고,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도 짐승도 없는 산속 곳곳에 흰 사람들의 모습이 도처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짐신의 삼매에 깊이 빠진 보살들의 모습이었다. 어느때 부러일까? 이끼가 끼고, 형상이 닳아 없어지고 있는 저 모습,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랜 동안,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보살, 어떤 것은 새의 모습 이었고, 또 어떤 것은 오소리 모습, 또 어떤 것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사람 모습, 또 어떤 것은 이미 형상을 다 잃고 돌이 되어 있었고, 옆에서 만져도, 귀에 대고 소리쳐도, 눈을 코앞에 붙여도, 이미 선정 삼매에서 삶을 벗어나고 있는 그들은 오로지 용맹정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후 그 모습이 내 정신세계속에서 보석처럼 깊이 박혀 헤어날 수 없었다. 나무 사이로 배꼽 너머 보이는 저 한쌍의 형상은 무엇을 향한 호두를 갖고 있을까? 나는 주저 앉아 넋을 잃는다. - 그가 나에게 말한다. 차나 한 잔 들게. 전생(사건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37년간 노력의 결실을 부처님께 아뢰는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정신문화 빛날 '우리글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1만여 사부대중 환희

고불의식·법전스님 법어

5일 서울 장충체육관, 1만여 명의 대중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가사 장삼을 갖춘 노스님에서부터 한복 급계 차려입은 젊은 여성불자에 이르기까지 환희심 넘치는 사부대중들의 모임이었다.

조계종과 동국대학교가 마련한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현장이다. 우리나라에 불법이 전래된 이후 1,600년 만에, 고려대장경 완성 700년 만에 우리말 대장경으로 탄생된 뜻인지 법회시작 전에 객석은 물론 계단까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불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도에서 회향법회를 볼 수밖에 없었다.

법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자들이 어깨 너머로 법회장을 살피던 김남진(39·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는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대작불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1시30분, 한국불교계의 숙원사업이던 한글대장경이 37년의 인고 끝에 회향을 알리는 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법회의 하이라이트는 한글대장경이 완간 되었음을 부처님께 고하고, 그 공덕을 다시 중생

모두에게 고부 나눈다는 의미로 진행된 고불식.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부처님께 봉헌하는 순간 1만여 사부대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환호로 우리말 대장경 완간을 축하했다.

고불식에 이어 조계종 원로들의 의장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제 우리말 대장경 318권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는 제불제조가 찬탄한 일이다. 호법선신이 환희할 일이다. 이 시대 사부대중들이 참으로 용약할 일이다"고 설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한 스님은 처사를 통해 "이제 감도의 법문이 활짝 열렸으며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불자들은 이 경전의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하여 자신의 무명을 밝히는 등불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향법회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직접 쓴 글에 정부기 교수(중앙대 작곡가)가 곡을 붙인 한글대장경 완간 기념 찬불가 "그대여 보라, 들으라 그리고 알라"가 1천 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장중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면서 법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회향법회 후 국악찬불가수로 널리 알려진 김성녀 씨의 사회로 정불 스님과 장사의 씨를 비롯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신명나는 회향 찬마당을 펼치며 3시간 여 동안 진행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김종근 기자

M 경 상

사람의 강전에서 쓰는 전통적인 강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섬세한 조각!!

이음새 부분은 용을 파서 제작!!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용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x 세로 33cm x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37°氣 배계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이룬분께 권해드립니다
- 낫은 두통·불면증·어깨결림·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식세트

- 특징 : 지압효과·보온/방습효과·향균작용 미끄럼 방지·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남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
- 재질 : 발포재(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미농 혼식 세트

아직도 흰 쌀밥만 드십니까?

신비한 효능을 지닌 미숫물의 글사과를 식이섬유와 푸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순 국대산 현미/보리/팥에 배합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더해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가능성 밥입니다.

- 구 성 : 상항버섯 쌀 (800g) 동충하초 쌀 (800g) 영양균형 혼식 (720g) 상항보리 쌀 (750g)
- 총중량 : 3070g ● 가격 : 33,000원

동(洞)공예달마도

100% 수직업의 동(洞)공예달마도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의 수직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입니다.

- 사이즈 : 가로 38cm x 세로 44cm
- 가 격 : 120,000원
- 100% 수직업으로 제작된 러블이라 상기 러블과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송기간은 4일정도 소요됩니다.



경고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마하몰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